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0. 27.(목)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정원 (044-200-5313)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전남 신안군에 들어선다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기관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이래,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세계유산 민·관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두기로 하였다.

이에 올해 8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생태, 건축·설계, 조사·연구, 세계유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10.14.(금))와 현장평가(10.24.(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로 선정되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신안군 건립 부지 50,406m²에 연면적 13,000m²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전남 신안에 들어설 ‘갯벌 세계자연 유산 보전본부’는 앞으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